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우리를 위한 오늘 모두를 위한 내일

Newsletter

2021년 / 8월 4주차

■ 연구원 소식

온다라 인문 아카데미 안내

우리 연구원과 협약기관인 전주대학교 고전학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인문아카데미가 실시간 강좌로 8월 25일과 9월 1일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가가는 인문학, 함께하는 인문학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학플러스(HK+)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 온라인 실시간 강의

# 온다라 인문 아카데미

전북 도민 누구나!

**PART 01 수강방법**

- ① 유튜브에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검색 후 접속 가능
- ② QR 코드를 통해 바로 접속 가능

**PART 02 참여혜택**

- ① 수강료 전액 무료
- ② 매 회차 추첨을 통해 상품 증정
- ③ 7강 이상 수강 시 선물 증정

※ 이번 강좌는 실시간 강좌로 진행되므로 강좌 관련 수강생 모집은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SNS 이벤트**

필수 해시태그: #전주대학교 #온다라지역인문학센터 #온다라인문아카데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에 해당 강좌 포스터를 게시한 후, 인증샷을 센터 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상품권을 드립니다.

※ 강사 및 강의 주제, 강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회차 | 일자        | 시간        | 강좌명 / 강사  |
|----|-----------|-----------|---|
| 1  | 8. 4.(수)  | 16시 ~ 18시 | 순국 그리고 비극적 죽음 / 이경배(전주대 HK연구교수)                     |
| 2  | 8. 5.(목)  |           | '의리(義理)'는 어떻게 '우리'가 되어갔을까? -개항기 편 / 문경득(전주대 HK연구교수) |
| 3  | 8. 11.(수) |           | 서구 근대 심리학의 수용과 전파 / 이대순(전주대 HK연구교수)                 |
| 4  | 8. 12.(목) |           | 유교문화 전통과 한말의 자결 순국 / 서정화(전주대 HK교수)                  |
| 5  | 8. 17.(화) |           | 일본의 조선 침략과 이데올로기적 시나리오 / 김동희(전주대 HK연구교수)            |
| 6  | 8. 18.(수) |           | 일 사상과 나라 잃은 슬픔을 극복하기 / 전종윤(전주대 HK교수)                |
| 7  | 8. 25.(수) |           | 맹자(孟子)의 인민과 국가 / 오항녕(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 8  | 9. 1.(수)  | 17시-19시   | 재일 제주인의 공동체와 문화 / 김창민(전주대 교양학부 교수)                  |
| 9  | -         | -         | 지역 인문자산을 활용한 <b>현선체험</b> I, II                      |

**현선체험이란?**  
신청을 통해 선착순 30명 선발 후, 체험키트를 택배 보내드리고 사진을 통해 진행되는 체험 방식

[체험1]  
문학체험 '역가 취재수첩, 길광편우(吉光片羽)'



[체험2]  
'매듭인형, 일종이와 풍심이'



※ 체험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45347)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학플러스(HK+)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55069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현암로303 전리관 212A호 | TEL 063) 220-3201-3, 3207  
H.P www.jj.ac.kr/hk/ | E-MAIL jjondara@naver.com

주관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후원 전주 최영희문화재단      후원 교육부      NRF 한국연구재단      전주대학교

## 비대치(鼻大峙)의 미국인 - 1950. 8. 25

윌리엄 딘. 한국전쟁 당시 미 육군 소장. 그는 제주 4·3 때 미 군정장관이었고 사태를 온건하게 처리하려고 시도했던 김익렬 연대장을 해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제주도 민들을 다 죽여도 좋다.” 며 강경책을 주장하던 박진경을 후임으로 임명했던 사람이다.

또 친일파 처단에 관한 법에 대한 인준을 거부하면서 그가 남긴 말은 그 이후 벌어진 우리 역사의 역류를 반영하고 있다. “군정이 폐지된 후에 조선 사람 자신이 친일파를 처벌하는 것은 자유일 것이나, 그렇게 되면 서로 많은 피를 흘려야 될 것이다. 점령 당시에 진주 목적의 하나로서 일제잔재를 소탕하겠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군국주의적인 일본식 제도를 민주주의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지, 친일파 운운한 것은 아니다. (서중석, 우사 김규식 생애와 사상 2 남북협상, 한울 35쪽)

이래저래 우리 역사와 좋은 인연은 아니었던 그에게 충격적인 악연은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맺어진다.

한국전쟁에서 본격적으로 미군 사단 병력이 인민군을 상대한 것은 대전 방어전에서였다. 2차 대전의 승리에서 승리한 지 얼마 안되었던 미군은 신생국가의 군대를 얽잡아 보고 여유로운 전투를 벌이다 대전 전투에서 궤멸적인 타격을 입는다. 그 아비규환의 와중에 딘 소장은 인민군의 포위망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 철수 부대와 함께 대전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후퇴 도중 부대와 떨어진 채 근 한 달 동안 그는 본진을 찾아 헤맸지만 길을 잘 못 들고 말았다.

소백산맥을 넘어 경상도로 가야 했지만 엉뚱하게 전라북도 진안 쪽으로 내려온 것이다. 맘씨 좋은 한국인들 가족에 몸을 의탁하기도 하고 밥도 얻어먹으면서 인민군의 감시를 피했지만 그의 도피 생활은 엉뚱하게 끝난다. 전북 진안에 있는 비대치에서 1950년 8월 25일, 지역 주민의 신고로 인민군에 잡힌다. (당사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다 1995년 세상을 떠다. - 자세한 내용은 <새전북신문> 2009년 10월 8일자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어찌되었든 그날은 딘 소장이 동아시아의 소국 코리아라는 나라와의 사이에서 쌓았던 악연 가운데에서도 최악의 악연을 쌓은 날이었다.

1950년 오늘, 미군 24사단장 딘 소장은 인민군의 포로가 됐다가 1953년 9월 4일에서야 첫 번째 미군 포로로 송환 되었다. 미국으로 돌아가 승승장구하다 천수를 누렸다.

그가 잡혔던 고개는 원래 비대치(比大峙)였던 이름이 이후 비대치(鼻大峙)로 불려지게 됐고 지금 지역 주민들은 코크니재라 부르고 있다.